

조 현 군
정희원, (주)전인 건축사사무소
by Jo, Hyeon-gun, KIRA

잊혀진 가람과 숨겨졌던 유적지를 찾아서

Finding forgotten temple and hidden remai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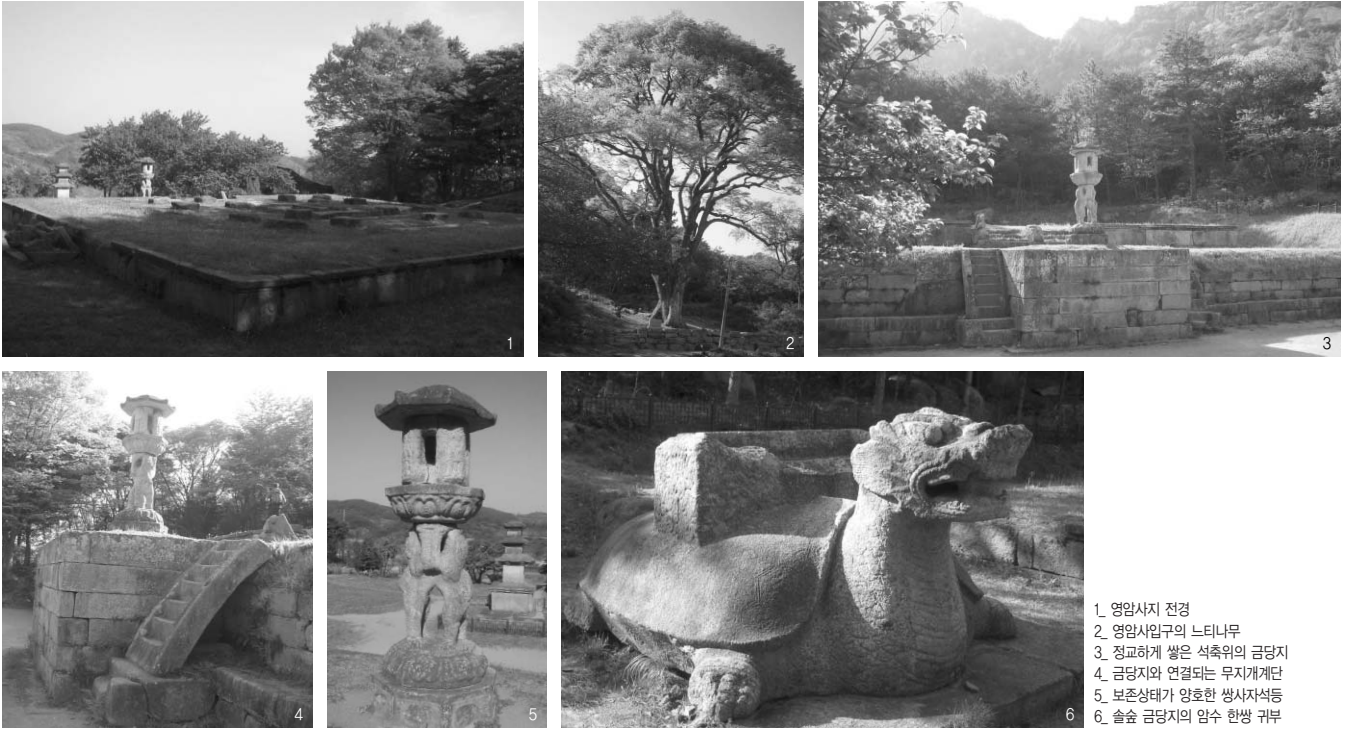
올해 목표 중의 하나가 산행을 자주 다녀서 수년내에 국내 100대 명산을 다 섭렵하는 것이다. 요즘처럼 일이 바쁘지 않을 때는 이런 목표를 세워 건강이라도 챙겨보자는 생각이다. 주로 산악회 버스를 이용해서 한달에 2~3번 다녀오는데, 최근에 철쭉산행으로 유명한 합천 황매산을 찾게 되었다. 인터넷으로 산행자료를 검색하던 중 그 산기슭에 신라시대 폐사지인 영암사지가 있다는 걸 알게되었고, 하산길에 인접해 있어 좋은 답사기회가 될 수 있었다. 더불어 지난 달에는 오랫동안 고대하던 캄보디아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다. 동료 건축사들과 며칠동안 앙코르 유적들을 둘러보고 여러 감회에 젖어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으며, 세계7대 불가사의 유적지답게 감탄과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였다. 합천 영암사지는 8c무렵에 건립되었고, 앙코르 유적지는 9c말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스케일이나 자연조건, 당시 정치체제 등이 달라서 두 곳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두 곳을 본 감회를 적어보고자 한다.

합천 황매산의 영암사 폐사지

당일 아침 일곱시에 동대문 운동장역앞에서 출발하여 경부고속도로, 대진고속도로를 거쳐 산행입구인 산청군 장박리에 도착하였다. 아무리 명산을 찾아가지만 다섯시간씩이나 버스를 타면서 느끼는 지루함은 어쩔 수가 없었다. 산행과 절터답사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이만한 인내는 필요하리라.

황매산 정상까지는 상당한 경사의 등산길을 1시간 반 정도 올라가야 했는데, 아쉽게도 철쭉은 아직 봉오리만 맺혀있는 상태로 일부만 꽃을 피우고 있었다. 정상을 지나서 황매평원과 '주몽' 드라마 촬영지를 좌우로 보며 산행을 계속하였지만 남쪽의 철쭉군락지도 개화직전의 상태. 다만 하산길 모산재 암릉구간의 멋진 기암괴석은 철쭉을 못 본 아쉬움을 어느정도 달래주었다.

4시간여 산행 후 거의 하산길이 끝날 무렵 나의 목표인 '영암사지' (사진1)에 도착할 수 있었다. 입구의 600여년된 느티나무(사진



1. 영암사지 전경
 2. 영암사입구의 느티나무
 3. 정교하게 쌓은 석축위의 금당지
 4. 금당지와 연결되는 무지개계단
 5. 보존상태가 양호한 쌍사자석등
 6. 숲속 금당지의 암수 한쌍 귀부

2)는 여기가 범상치 않은 절터임을 알려준다. 주변을 둘러보니 방금 내려온 모산재의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서서 영암사의 배산역할을 하고있다. 아래에서 올려다보니 말그대로 ‘영험있는 바위(靈岩)’ 같이 보인다. 이 절터는 일부 복원된 3단 석축 위에 3층 석탑, 쌍사자석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통일신라 말기의 선종사찰로 추정된다고 한다. 정교한 석축(사진3)들과 무지개 계단(사진4). 화강암 통돌로 만든 석등(사진5), 서측 숲속 금당지의 거북받침돌(사진6) 등 신라시대의 석조물이 세월의 흔적과 옛사람의 숨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발굴 작업을 통해 회랑까지 갖춘 당시의 큰 사찰로 밝혀졌으며, 불국사, 갑은사 등과 같이 국가적인 상징성을 지닌 거찰이었다고 하나 어떤 경위로 폐사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저녁 무렵 산행으로 피곤해진 몸으로 찾으니 고즈넉한 분위기의 절터가 더없이 아늑하다. 절터를 잘 유지한다고 하니 다행이란 생각이다. 폐사지는 폐사지답게 보존하는 것이 최선책이리라. 인접한 콘크리트 사찰처럼 옛절들이 중수, 개축을 거치며 원래의 분위기를 망쳐놓은 곳을 여러 곳 보아온 터라 이렇게 분위기가 잘 보존된 폐사지는 신비롭기까지하다. 만개한 접살구꽃과 이제 피어나려는 불두화를 뒤로 하고 뿌듯하고 충만한 마음으로 하산주가 기다리는 곳으로 갈 수 있었다.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지

안젤리나 졸리의 ‘툼 레이더’, 양조위 주연의 ‘화양연화’ 를 보고 나서 부터인지 앙코르유적지 답사는 수년간 내 다이어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한 해의 목표였다. 더구나 얼마전부터 앙코르 유적지만 둘러보는 단체여행도 생기고 직항편도 생겨 더욱 갈급한 마음이 되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던가. 마침 결혼기념일이 들어있는 4월에, 아

주 경제적인 비용으로 다녀올 수 있는 단체여행 프로그램이 나왔다. 우여곡절을 겪고, 노심초사하며 일정을 조정하여 건축사 일행들과 드디어 장도에 오를 수 있었다.

‘시엠립’ 공항에 내리니 35도의 여름날씨. 예상은 했지만 너무 더웠다. 다행히 건기라 그늘에 들어가면 그런대로 견딜만 하였다. 현지 한국인 가이드가 일정을 조정하여 연대순으로 유적지를 보기로 했다. 앙코르 유적지는 9세기말부터 13세기초까지의 크메르제국 건축물로 초기에는 힌두교사원이었고 후기에는 불교사원의 용도였다고 한다.

첫날 오전은 크메르왕국 최초 수도인 킬루오스지역의 톨레이, 프레아 콩, 바공사원을 둘러보았다. 특히 바공사원(사진7)은 시바신에게 바친 최초의 힌두교신전으로서 보존상태가 아주 양호하였다. 6층의 기단을 층층이 포개어 장엄함을 강조하였으며, 사진에 나타난 중앙탑은 시바신이 거주하는 메루산을 형상화한 것이라 한다.

앙코르 유적지를 보기 위해서는 사전 공부 필수적인데, 다행히 우리 가이드가 힌두교의 각종 신화에 대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들려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오후에는 ‘앙코르 톼’ 을 보았는데 유명한 남문(사진8)을 거쳐 중



7. 6개층 기단위의 바공사원 중앙탑 8. 바이문사원의 남문



9. 바이온사원의 전경
 10. '바이온의 미소'로 유명한 관세음보살석불
 11. 앙코르 왓사원 전경
 12. 나무와 건축물의 기이한 공존
 13. '반띠아이 스레이' 사원의 정교한 부조
 14. 출입문의 휴먼스케일

양의 바이온사원(사진9), 코끼리 테라스 등을 순서대로 보며 위대했던 크메르 문명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다.

건축재료는 라테라이트(紅土)와 사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라테라이트는 우리의 황토처럼 평탄한 대지에서 무한정 생산되며 벽돌로 구워 구조체로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바이온사원은 '바이온의 미소' (사진10)로 알려진 석불로 유명하며, 초기 힌두교 유적위에 재건축된 불교사원으로 이곳의 신비스러운 분위기는 글로 표현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

둘째날 오전에는 앙코르 유적지를 대표하며 크메르예술이 최고조에 이르렀을때 건립된 앙코르 왓사원(사진11)을 방문하였다. 장대한 스케일, 섬세한 부조들이 '동양의 자부심' 이란 말을 들음만 하였다. 이 곳은 사전지식 없이는 방문해서는 안될 곳으로 너무나 많은 얘기 거리를 품고 있었다. 우리는 가이드의 장황하고도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1층 회랑 부조벽부터 70도 경사의계단을 올라 3층 중앙성소까지 둘러보았다. 완벽한 균형과 대칭,공간의 반복,섬세한 디테일의 석조건축물을 구현한 당대의 건축가들에게 존경과 부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오후에는 '툼 레이디' 영화의 배경이었던 '따 프롬' 사원을 보았는데 한마디로 기괴함 그 자체였다(사진12). 나무와 건물의 공생이 이런 방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한때는 사원의 파괴자였던 나무들이 건축물과 떼놓을 수 없는 동거인이 되어 더불어 살아가고 있었다. 여기서는 자연인 나무와 인공인 건축물이 한덩어리로 영커서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최소한의 통행로만 두고 허물어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있어 '자연에 순응하는 유적' 의 아름다움을 접할 수있었다. 오후 늦게 일몰장소로 유명한 '푸놈 바깥' 을 갔었는데 해발67m로 앙코르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동산에 위치해서 주변일대가 한 눈에 조망된다. 바위투성이 산길과 급경사 계단을 오르니 저멀리 '웨스트 바라이' 호수와 주변 밀림사이로 사원의 첨탑들이 살짝 보인다. 최상층 테라스

에는 승려들이 젊은 여성 관광객과 짧은 영어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시간상 일몰을 못 본 아쉬움을 뒤로 하고 산길을 내려왔다.

셋째날에는 크메르의 보석이라는 '반띠아이 스레이' 사원을 방문하였다. 붉은색 사암으로 지어졌는데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정교한 부조(사진13)들과 휴먼 스케일의 건축물로서 보존상태가 대단히 양호하였다. 실제 중앙탑의 문이나 각종 입구들이 왜소할 정도로 작았는데(사진14), 오히려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조각의 섬세함을 느낄 수 있도록 고려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여러 사원들과 호수들도 둘러보면서 여행을 마무리했는데, 가는 곳마다 기대했던 것 이상의 감동과 너무 많은 것을 본 뒤의 혼돈 등이 뒤섞여 여행자의 기억에 오랫동안 각인되어질 것 같았다. 이렇게 간략하게 답사여행기를 정리해 보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여 두 곳 모두 유적지보전의 방법이 중요하다는 걸 실감나게 해 주었다. 합천 영암사 폐사지를 섯불리 발굴했으면 지금같은 고즈넉한 분위기를 살릴 수 없었을 터이고, 앙코르 유적지도 1920년대 처음 발굴 당시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유산이 되도록 노심초사했을 유럽발굴팀이 없었다면 내전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존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요즘도 앙코르 지역은 유네스코 주관으로 독일,일본 고고학자들이 복원작업을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 이런 유적지를 답사하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어느정도 준비가 필요함을 느꼈다. 아는만큼 보인다고 했다가... 상당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유적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역사의 흔적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여행도 여유가 있어야 다니겠지만 그 여유는 내기 나름인 것 같다. 일 없다고 쪼그려 들지말고 이 여유를 잘 이용해 부지런히 다니며 역사와 건축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기회로 삼자. 세상은 넓고 볼 것은 너무 많다.(이번 답사여행을 준비하면서 장지연의 '잊혀진 가람탐험' 과 트래블게릴라의 'All About 앙코르 유적' 책자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